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칼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변경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정신질환에 대해 각종 미디어에서 방영되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란 무엇인가요?”

정신질환은 일반적인 중증정신질환(보통 ‘정신병’으로 불려짐)뿐 아니라 치매, ADHD,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광범위한 질환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질환 >정신병(혹은 중증정신질환) >조현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회복에 필요한 치료와 재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무엇이고, 그 효과와 부작용이 어떤지를 아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주치의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여, 치료와 회복을 일련의 과정에서의 노력이 더욱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치료는 회복의 과정 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회복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힘들 때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여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재활시설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재발방지 대책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 그리고 약물을 잘 복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습관 (수면, 식사, 외출 등) 등이 일반인과 같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소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전문가들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마음과 몸은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건강만큼 신체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활동(여가, 직업, 학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3.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어떠한가요?”

꾸준하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은 곧 위험하고, 함께할 수 없으며,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보도들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현병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아닌지 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치료의 지속성은 모든 질환에 공통된 것 입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 망상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상악화로 인하여 다소 폭력적이고 공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꾸준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런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어 생활의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폭력성이 강하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편견은 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과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계적 결과로서의 위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지내도 되는 질환이 맞나요?”

함께 지낼 수 없는 질환을 찾아 보는 것이 어찌면 해답이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염성 질환이 대표적이겠지요?

정신질환의 경우 약물치료와 외래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회복하여 간다면(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건강관리가 병행되는 것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정신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거주, 교육,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권과 거주권은 결국 인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 친척, 이웃 누구나 겪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음 시설장 김용진

[시설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 12길 24-15 (상계2동 136-18)
- 문의 : 02-475-1403~4

